

마음, 과연 무엇인가 - 불교의 심리학적 측면

빠야닷시 스님 (스리랑카)

(6) 의지의 작용 업(業)

업은 존재를 모양 지우고 윤회를 초래하는 인과율

바와(bhava: 생성과정 또는 존재)와 앙가(āṅga: '요소'의 뜻 보다는 오히려 '원인' 내지는 '도우는 것'을 뜻하는)의 합성어인 바랑가(有分)는 존재의 지속을 위해 불가결한 조건입니다. 이 빠야리아에 가장 가까운 영어 동어어는 life-continuum(생명-연속)정도 가 아닐까 합니다. 바랑가 찢따가 존재하는 까닭으로 식의 흐름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흐를 수 있는 것입니다.

반약 여기에 태어난 현재의 생이 맨 처음으로 시작되는 삶이고 죽음이 삶의 진정한 끝이라면 인생사를 두고 골머리 썩힐 필요는 없을 것이고 따라서 득카(苦)의 문제 즉 모든 경험적 실존의 불만족성의 문제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애쓸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도덕적 질서, 옳고 그름의 진실성은 우리에게 아무런 실질적 의미도 지니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감각적으로 즐기고 충족시키면 이 짧은 인생을 똑똑하게 사는 것이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관점은 사람들이 왜 똑같이 못하니 그 까닭을 해명해 주지 못합니다. 탐구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언제나 이 불평등성의 원인을 찾으려 애쓸 것입니다.

원인과 결과, 씨와 열매의 연속운동

심리학적 관점에서 꼭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될 부처님의 주요한 가르침이 두 가지 있습니다. '업'과 '다시 태어남'입니다. 업은 존재의 운명을 모양지우고, 다시 태어남을 초래하는 도덕적 인과율입니다. 근본적으로 그것은 의지(cetanā 思)의 작용, 의지가 촉발하는 행동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비구들이여, 의지의 작용이 업임을 나는 천명하노라. 의지를 지녔기에 사람은 행위, 말, 생각으로 행동하는 것이니라.”

즉 의지의 작용은, 선이든 악이든 우리의 모든 활동을 결정짓는 요소입니다. 업은 작용이자 씨앗입니다. 업이 초래하는 반작용, 결과 또는 결실은 업보라고 합니다.

의지 작용은 좋은 수도 있고 나쁜 수도 있으며 의지 작용이 빛는 행동은 그것이 초래하는 결과에 따라서 선업도 되고 악업

도 됩니다. 작용과 반작용, 원인과 결과, 씨와 열매의 이 끝없는 높음이 연속 운동으로 지속하며, 이것이 바로 생성인 것입니다. 이는 앞에서 논했듯이 존재하는 정신, 물리적 현상의 끊임없는 변천 과정인 것입니다.

사람은 몸과 말 그리고 마음을 통해 행동합니다. 행동 즉 작용은 반작용을 초래합니다. 갈애, 우리의 갈망은 그 역시 마음의 한 요소인데 행위를 생기게 하고, 행위는 결과를 낳습니다. 다시 결과는 새로운 욕구, 새로운 갈애, 갈망을 가져옵니다.

선악행위 상벌할 초월적 힘은 없다

원인과 결과, 작용과 반작용의 전개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법이기 때문에 법을 제정하는 자는 따로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선악 행위를 상벌할 외부적 힘은 불교 사상에서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사람은 항상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변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 자체는 피할 수 없지만 변화의 방향만은 자기 자신의 의지와 행동에 의해 전적으로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 보편적 자연법칙이 아니라 보편적 도덕의 영역에도 적용된 것일 뿐입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불교가 회개에 의한 죄의 사면이라는 관념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관념은 그 자신을 위해서나 남들을 위해서나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잘못된 행동을 탓하되 이를 '죄'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죄'란 용어부터가 부처님의 가르침과는 동떨어진 것입니다. 부처님은 중생의 잘못을 벌하고 선행을 상주는 법 제정자도, 중재자도, 권력자도 아니기 때문에, '부처의 법에 위반됨'과 같은 것은 애당초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행위를 한 자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행위의 결과로 고통을 맞보거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자신의 일입니다. 따라서 선을 행한다 악을 행한다 그것도 그 자신이 알아서 할 일인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언급해 둘 것은, 선이거나, 악이거나 모든 행동은 반드시 과보를 초래할

만큼 성숙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신의 선업이 악업을 눌러 버릴 수가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교의가 숙명론이 아닌 점, 그리고 인간의 행동은 자유롭지 못하며 의지에 작용하는 외부적 힘과 같은 동기들에 의해 필연적으로 결정되거나 또는 신에 의해 미리 예정된 것이라는 취지의 철학적 교의가 아니라 점을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이 다시는 변경될 수 없게 고정되어 있다는 이론, 모든 것을 피할 수 없는 필연의 소산이라는 이른바 '엄격한 결정론'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완전한 비결정론'을 지지하지도 않았었습니다.

불교에 따르면 업 또는 의지적 행동에 의존하지 않는 생은 태어나기 전에도, 죽은 후에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업은 재생의 당연한 결과이며, 한편으로는 재생 역시 업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태어난 죽음에 선행하고 다시 죽음은 태어남에 선행합니다. 그래서 이 한 쌍은 서로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면서 중단 없는 연속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런데도 한 생애에서 다음 생으로 옮겨

**우리는 계속 변화하는 존재
매 순간마다 살고 죽기 반복
파도처럼 일어났다 사라진다
변화 자체는 피할 수 없지만
변화 방향은 자기 의지로 좌우**

**온갖 형태의 욕망 즉 갈애는
악과 인연 맺는 온 세상의 적
집착이 전 세계에 고통 안겨줘**



아가는 연속적 자아나 영혼 또는 고정된 실체는 없습니다. 사람은 마음과 물질이라는 정신·물리적 단위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정신 또는 마음은 결코 지속하는 실체, 미리 만들어 놓은 영구적인 어떤 것을 뜻하는 영혼, 또는 자아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금생의 기억뿐 아니라 여러 과거생의 기억마저도 능히 축적할 수 있는 어떤 힘, 일종의 역학적 연속체인 것입니다.

마음의 역동적 흐름 업력

오늘날 과학자들에게 '물질'은 긴장 상태에 있는 에너지이며, 실질적 내용이 없는 변화 그 자체입니다. 심리학자들에게 '정신'은 더 이상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이른바 '존재'나 '개인'이니 하는 것은 단지 물리적, 정신적 힘 내지 에너지의 결합에 불과하며 지속성을 띤 변화라 그 힘주어 역설하셨을 때 그분은 현대 과학과 심리학을 2천 5백년이나 앞지르고 계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개체만 이처럼 존재로 일어났다 사라지며, 한 순간에서 곧바로 이어지는 다음 순간에도 같은 모습으로 있지 않고 그 무엇으로 계속해서 변화하는 존재입니다. 이 정신, 물리적 유기체는 비록 그와 같이 부

단한 변화를 겪지만 매 순간 새로운 정신, 물리적 과정을 창출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유기적 진행을 미래에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가능성을 보존할 뿐 아니라 한 순간과 다음 순간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일생동안 매 순간마다 이처럼 살고 죽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다의 파도와 마찬가지로 단순한 일어난다 사라지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특권처럼 여기고 있는 삶이라는 지속적 변화 과정은 죽음으로써 끝나 버리지 않습니다. 마음은 그 유동(流動)을 끊임없이 지속합니다. 우리가 업력이라 부르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의 역동적 흐름인 것입니다. 그 강력한 힘, 그 살겠다는 의지력이 계속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따라서 이 연속적인 식의 흐름은 끝없이 계속되며, 수 만개의 얼굴을 가진 '갈애'가 우리의 그 모든 정신 나간 짓 중에서도 가장 큰 번뇌인 무명과 짝지어 식을 발동시키는 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온갖 형태의 욕망이 갈애에 포함됩니다. 재유(再有)의 인(因)인 탐욕 갈망 색욕 격정 동경 열망 의향 애모 가족사랑 등 갈애를 나타내는 용어들은 얼마든지 많은데, 부처님 말씀으로는 이 갈애들이 바로 '우리

를 존재형상으로 끌어들이는 요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고통, 좌절, 갈등, 괴로운 흥분상태, 불만족과 같은 득카(苦)로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 우리 자신이 늘 겪고 있는 것들입니다.

존재들은 소유 내지는 욕망 충족에 대한 강렬한 갈구로 인해 생존이라는 운명의 수레바퀴에 묶이게 되고, 그러고는 고뇌라는 바윗살 사이에서 비틀리고 찢겨져서 궁극의 해탈에 이르는 문을 단단히 닫아걸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욕망이아발로 온 세상의 적이니,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 악과 인연을 맺게 되는 것은 모두 이 욕망을 통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이 욕망은 비단 감각적 쾌락이나 부귀영화에서 오는 즐거움, 또 남을 거꾸러뜨리고 남의 나라를 정복하는 쾌감 따위의 탐욕과 집착뿐만 아니라 관념 견해 의견 신조 등에 대한 집착(執執)도 포함하며, 이런 집착이 한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재난과 파멸로 이끌어 이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다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법문리서지 7'(고요한 소리)의 내용입니다.

<p>불자 정보 883호 TEL 02) 2004-8215(直) FAX 02) 737-0696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편집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p>	<p>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마산 시외터미널 부근 마산역 5분거리 시장안 • 평수 15평, 2층 • 보증금 200만원 월 22만원 • 시설비 4500만원 010-5042-1003</p>	<p>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청송 • 대지 : 135평 • 법당 14평, 개금 삼존불 • 후불, 칠성, 지장, 신중, 영가단 • 심야전기 • 주차장 완비, 도로에서 200m • 가액 : 9천5백만원(조정가능) 010-4146-6556</p>	<p>사찰안내 • 위치 : 전남 나주시 인근 • 총평수 637평, 전건축물 목조 • 대웅전 30평, 요사채 20평, 공양간 10평, 해우소 30평 • 정동암반지하수 130m, 물수량 10톤 일급수 07캐러시시설 • 사찰경내지 계곡물흐름 잔디 및 조경완벽 • 무안-광주간 IC 5분거리 1호선 국도 8분거리 • 개인사찰, 꼭 현실분만 전화요망 • 가액: 5억 5천만원 (조정가능) 010-6375-0108</p>	<p>사찰안내 • 위치 : 산청 지리산 • 평수 2100평 • 대웅전 30평, 요사채 80평 • 황토한옥 30평 • 용왕각 • 가액: 6억 5천만원 010-2610-9997</p>	<p>사찰안내 •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시내 • 법당: 11평, 요사채 방2칸, 공양간, 옥실 현대식 • 비구니스님, 철학자, 법사, 보살께서포교하기에 아주 좋음) • 가액: 5000만원 • 전세보증금 300만원 월세 30만원 010-2055-3366(스님직접)</p>	<p>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 팔공산 근접 • 평수 70평 • 3층건물에 2층 • 보증금 2천만원 월 6십만원 • 즉시법회가능 010-4500-8234</p>
<p>실버타운, 요양시설, 적지 • 위치 : 경남 사천시 사남면 • 좌청룡, 우백호 전주자, 후현무 • 모두 갖춤(명당), 식수1급수 • 현, 전원주택, (옛날 학교터) • 554평 • 가액 : 2억 5천만원 011-9517-8526</p>	<p>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구 동구 신암동 • 3층건물중 2층(45평) • 삼존불산신, 각광화, 소불270, 지장관음 • 천전실방, 공양간, 창고, 수세식화장실, 세면실 • 에어컨, 집기일체완비 • 목판오시면즉시법회가능 • 보증금500만원 월45만원 • 시설비 3000만원(조정가능) 010-2224-8967</p>	<p>사찰안내 • 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 1층 요사채 50평 • 2층 법당 50평 • 옥상 : 지장보살 입상, 대종 • 대지 75평, 시설 A급 • 가액: 4억 7천만원(시설비 포함) 010-3621-8747</p>	<p>사찰안내 • 위치 : 경북 영천 시내 • 평수 180 • 산신각, 용왕당 • 대웅전(23평), 종각 • 요사채 • 가액: 1억 7천만원 (시설비 포함) • 목판 오시면 됩니다 011-532-5919</p>	<p>사찰안내 • 위치 : 경남 창원군 도전면 송진2리 240번지 • 평수: 540평 • 대웅전 25평, 산신각 5평 • 요사채 2동 각 13평, 5평 • 가액: 1억7천만원 011-571-8961 010-2739-3816</p>	<p>도심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 서대문구 흥은동 • 평수 약 25평 • 보증금 1천만원 월4십만원 • 시설비 1천2백만원 • 투입된 가격에서 1/3만 받습니다 • 삼존불, 각단평화4점, 범종장기류일체 • 목판 오시면 됩니다. 시설완벽 • 봉축법회 이곳에서 보내셔도 됩니다 010-3383-3853</p>	<p>사찰안내 • 위치 : 경남 양산 • 덕적, 서장 근교, 산밭에 위치 • 슬라브건물 • 법당 27평, 요사채 32평 • 단청완료 • 가액: 2억 4천만원 (조정가능) • 사정상 양도 016-707-2916</p>
<p>사찰 명당부지 안내 • 위치 : 경남 합천군 삼가면 • 한옥 황토집3채 • 대지 약1천평 • 주변 경관 산세 수려하고 전국 교통망 편리 (진주, 창원, 대구, 20-40분거리) • 가액: 22억 055)934-4488 010-3521-6920</p>	<p>토굴 안내 • 위치 : 경남 거창군 신원면 구사리 • 대지 145평, 건물 25평, 방4, 인법당 • 입식주방, 수세식화장실, 순간온수기, 비데설치, 에어컨2대, 불상1, 후불평화1 • 식수, 자연생수(석간수), 텃밭, 차고있음 (진주, 창원에서 500m 떨어져있음) • 20m전방에 마르지 않은 계곡 • 가액 : 6천5백만원 010-3509-0124</p>	<p>전통사찰 전통사찰로써 목조단청 수행과 포교의 전법도량 도심과 산사 교통편리함 (공찰관계로 양도 의향) 가액: 11억 예산 (서울, 안양 인접 의왕시 소재) 010-3678-2567</p>	<p>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수영구 수영동 • 위치 조건이 좋은 대로변 • 평수 약 30평 • 3층 건물 중 2층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당사 후 절충 결정 • 꼭 현실분만 연락 요망 010-3572-8426</p>	<p>사찰(급)안내 • 위치 : 충북 청원C 인접 1분거리 • 부지 988평 • 정동백호 정남향 • 법당1, 요사채2, 심야전기 • 가액: 5억 5천만원 • 현지 답사후 조절가능 010-8284-0667 043)275-0667</p>	<p>큰명당절터 3600평, 큰명당 사찰 384평 큰명당사찰 2600평 포교원 30평 수도권 양도 또는 전세 풍광 좋고 도로매우 양호 나이가 많아 정리합니다 010-9245-4984</p>	<p>포교원(급)안내 • 위치 : 강서구 화곡역 3분거리 • 보증금 1천만원, 월 7십만원 • 평수 약 60평 • 3층건물에 2층 • 법당, 시설완벽, 살림가능 • 큰방2, 주방, 화장실 2개 • 가액: 5천 7백만원 010-9939-6966</p>